

# 2012년 하반기 축산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오 상 집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교수,  
본회 R&D위원

## I. 2012년 하반기 축산 여건 변화

옥수수과 대두의 주요 생산지역인 미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올 하반기 옥수수 수확 예상량이 예년에 비하여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발표된 수확량 예측치가 지난 달 예측치에 비하여 다소 높아졌고, 브라질의 현재 작황을 감안한다면, 사상 최고 수준의 양등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지역의 곡물 작황 불량까지를 감안한다면, 2013년 사료 곡물 가격의 상당한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산물 소비시장을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되어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축산물의 소비도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 위축 현상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축산물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은 유럽지

역에서의 산란계에서의 관행케이지 사용금지 조치 발효를 필두로 동물복지를 향한 주요 축산국의 행보도 분주한 한해였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2012년의 이러한 격변이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구조화된 변화의 일단이라는데 있다. 이중 물론 사료곡물 가격은 작황이나 재고 수준에 따라 상승·하락하겠지만 빈번해지는 기상 이변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또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전 세계 축산물의 수요는 개발도상국의 소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인당 축산물 소비량이 일정 수준에 이른 국가인 경우, 축산물의 소비추세는 소득자체보다 소비자의 소비 행태(심리) 변화와 맥을 같이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소비자나 축산물 소비 행태가 이제까지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복지를 일부의 선호로만 치부하던 때가 불과 3~4년 전이었으나 이제 전 세계 소비자는 우리나라 모 가수의 춤곡 열풍처럼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는 불과 4년전 동물복지 자체 기준이 충분하다고 고집했던 미국산란계생산자협회(UEP)가 전면 입장을 바꾸고 복지형 케이지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한 점, 복지 실태 영상이 SNS를 통해 폭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파장이 커져 대형 농장도 도산되는 현실을 볼 때 더욱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바야흐로 축산의 여건이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글을 통하여 이러한 여건 변화의 시점에서 사료업계 및 축산업계가 대응하여야 할 점을 실질적 대책 위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방안들은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직면하는 축산 여건의 변화에 하나의 대책으로만 완전하게 대응할 수는 없기에,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다양한 대책을 정리하여 보았다.

## II. 사료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

사료가격 양등시기에서의 사료제조 제일 키워드는 '사료비용 절감'이다. 흔히 사료비용하면 배합사료 단가만을 떠올리는데 실제 사료비용의 감소는 축산물 판매 비용당 소요 사료비용을 감소시켜야만 의미가 있다. 이는 사료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은 대책을 얼마나 이행하느냐의 합으로 실

제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더군다나 여러 대책 중 하나만 이행하는 것은 실제 사료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미미하다. 즉 사소하지만 다양한 여러 대책을 모두 이행할 때 실효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사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사소한 대책을 순서 없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배합사료의 단가는 kg당 단가가 아니라 주요 가용 영양소 함량 대비 단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사료 효율도 총생산물 판매가격 대비 사료비용으로 산출하여 평가해 보아야 사료의 허실이나 소화율, 폐사율, 현재 축산물 가격 등을 반영한 실질 효율을 알 수 있다.

③ 사료의 허실량을 최소화하는 것은 실제 사료비용 절감에 필수적이다.

④ 사료의 소화율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가동하는 것도 사료비용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입자도 조절, 펠렛가공, 곰팡이 독소 오염방지, 과잉 급여 금지 등의 조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사료의 섭취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료이고, 이것이 생산 경제성, 사료비용 절감과 직결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⑥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대체원료를 적절히, 그리고 과감하게 활용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⑦ 스트레스, 질병, 음수관리도 사료 허실방지, 사료 소화율 증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⑧ 효소제, 아미노산제 등을 적절히 활용

하여 기존 사료곡물 원료의 사용 비중을 줄이는 것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⑨ 사료의 과잉급여, 특히 낮은 소화율 사료의 과잉급여는 장내 미생물 증가를 가져와 소화율 감소, 소화기성 질환으로 발전하여 사료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⑩ 이유 사료나 출하직전 등 절식이나 제한급이가 유리한 경우에는 이를 시행하는 것이 장 건강 증진이나 사료비용 절감에 도움이 된다.

⑪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별 사양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한 사료를 급여하는 것도 사료비용 절감에 필수적이다. 오히려 기별 적정 영양소 수준을 초과하는 영양소 과잉은 가축건강 저하는 물론 사료비용 상승과 직결되어 있다.

⑫ 적합한 사육밀도 유지는 사료허실 방지, 가축의 전투적 행동 감소 등으로 사료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⑬ 축군내 허약, 위축 개체를 가급적 조기 판별하여 제거하는 것도 사료비용 절감에 꼭 필요하다.

### Ⅲ. 축산물 소비추세 변화에 대한 대책

최근 경제 불황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어 축산물의 소비도 다소 위축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가인 소고기의 일인당 소비량이 정체되어 있고, 저가임에도 계란의 소비량마저 정체되어 있다. 더군다나 수산물의 공급량도 제한되고 가격이 상승하였음에도 이를 대체하는 축산물의 소비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축산 농가의 경우 사료가격은 상승하는데 오히려 축산물 판매가격은 하락하여 수익성을 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산자도 입식량을 무조건 증가시키는 행태를 자제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종축 자체가 우수하지 못한데도 입식수만을 증가시키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둘째, 사료 섭취량을 증대시켜 무조건 생산량을 증대시키거나 고에너지 사료투입으로 지방을 과다 축적시키는 사양 관리 행태도 중단하여야 한다. 오히려 적절량 섭취로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고, 출하 체중을 품종별로 또는 암수에 따라 달리하여 지방축적이 급증하고 사료 효율이 저하되는 시기 이전에 출하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근내 지방 침적도가 높은 소량의 고급육, 삼겹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하여 사료가 과잉 급여되는 사양 행태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고지방 침적 소고기, 삼겹살 선호 추세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비주얼화된 정보에 그 전파 속도도 빨라져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가 급속하게 전파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비 행태의 변화가 과거처럼 점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우 빠르게 그리고 파격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소고기 소비는 줄어들고 계육의 소비가 증가한다든지 중국에서 돈육 대신 계육이나 소고기 소

비 비중이 높아지는 속도는 과거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 행동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 행태의 변화에 사료업계나 축산업계가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넷째, 앞으로 향후 식생활에 간편식 비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산 축산물을 소재로 하는 합리적이고 편리한 우리나라 간편식 제품의 개발이 시급해졌다는 뜻이다. 간편식 시장에 국내산 축산물이 활용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변화하는 소비자에게 우리 축산물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제까지의 신도블이나 소비자의 애국심에서 발원하는 스토리의 영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즉, 앞으로 소비자에 납득될 수 있는 스토리로 국내산 축산물의 차별성과 가치를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대를 정점으로 오히려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총 축산물 수요량 자체도 증가할 여지는 적고,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행이라면 세계 축산물 수출시장은 확대되어 우리나라에 대한 축산물 시장 개방 공세는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축산의 최적 규모를 도출하고 이에 맞추어 축산을 변화시켜 나가는 체질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어느 사업 분야이든지 구조의 혁신이나 체질 변화는 빠른 계획과 점진적인 추진이 효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IV. 마치며

2012년 하반기 세계의 축산 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밝지 않다. 사상 최악은 모면하더라도 사료곡물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반면 축산물 소비시장은 정체되어, 수급 불균형으로 오히려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축산업의 채산성이 어느 때보다도 열악해 지고 있다.

위기의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인데, 가축입식이라든지 사료 섭취량이나 생산량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양행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사료곡물 가격의 상승 가능성은 더욱 빈번해지고 장기 경제 불황이 예측되고 있어 소비 정체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사료업계나 축산업계의 구조적 혁신과 근본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여건변화에 특효처방이란 없다.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대책을 모두 활용하여야 조금이라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위기를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향후 축산업의 경쟁력에서 차별적 우위를 확보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불황의 터널은 길수 있으나 그 터널을 슬기롭게 통과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발전의 세계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음도 기대하여야 한다. ☐